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과 인터넷 윤리교육의 과제

Online Moral Disengagement and the Task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추 병 완
춘천교육대학교

◆ 목 차 ◆

- I. 서론
- II. 도덕적 이탈의 원인에 관한 이론
 - 1. 도덕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이론
 - 2. 탈억제 이론
 - 3. 도덕적 자기 조절 이론
- III. 도덕적 이탈 예방을 위한 교육적 과제
 - 1. 자기 조절 능력의 함양
 - 2.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
 - 3. 통합적 도덕성의 발달
- IV. 결론

<요약>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 공간에 비해 훨씬 잦은 그리고 많은 도덕적 이탈을 경험한다. 우리가 온라인 상태에서 도덕적 이탈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 기술이 행위자와 피행위자간의 도덕적 거리 및 심리적 거리를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커진 거리감은 우리의 내적 규제 체계가 탈억제되거나, 자기 이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적으로 도덕적 이탈 기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조절의 실패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예방하고

순행적 형태(proactive form)의 도덕 행위자를 양성하기 위해 향후 인터넷윤리교육은 도덕적 자기 조절 역량을 함양시켜 주는 교육, 확고한 도덕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는 교육, 도덕성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주제어 : 도덕적 거리, 도덕적 이탈, 도덕적 자기 조절, 심리적 거리, 인터넷윤리교육, 탈억제

I. 서론

정보 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하루 일상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상태에서 보낸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오락, 예술, 스포츠 등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온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사이버 공간은 이제 우리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제2의 생활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자아를 발견·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타인들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성원으로 참여하면서 현실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온라인 문화 창조의 주체로 급부상하였다.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정보의 나눔과 공유에 의한 공론적 담론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자질구레한 전자적·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통로로 변질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도덕적·법률적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라인골드(Rheingold)가 언급했었던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자유에 대한 위협, 삶의 질에 대한 위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다.¹⁾

일찍이 시첼(Sichel)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성은 아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기획(fragile enterprise)에 불과하다.²⁾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인간의 도덕성은 현실 공간에 비해 더욱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온라인 상

1) 라인골드, H., 이운경 옮김, 『참여 군중』(서울: 황금가지, 2003), p. 350.

2) B. A. Sichel, *Moral education*(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8), p. 3.

태에서 오프라인 상태에 비해 훨씬 잦은 그리고 많은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을 경험한다. 그러한 도덕적 이탈은 인터넷 중독의 경우에서처럼 자기 배려(self-care)와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고, 사이버 범죄에서의 경우처럼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는 가운데 타인들에게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 결과, 온라인 상태에서의 도덕적 이탈은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지 않기에 우리의 도덕감(moral sense) 자체가 느슨해지게 된다. 하임(Heim)이 지적했듯이, 인간의 얼굴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도덕의식은 오히려 무례함이 판을 치게 된다.³⁾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너무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상태에서와 달리 온라인 상태에서 왜 우리는 더 많은 도덕적 이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무릇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기에,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 역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인터넷윤리교육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원인을 처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 기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도덕적 거리(moral distance) 이론과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이론, 탈억제(disinhibition) 이론, 도덕적 자기 조절(self-regulation) 이론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초래하는 근본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네 가지 이론들의 특징과 유용성을 밝히고, 그러한 기제들이 인터넷윤리교육에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3) 하임, M., 여명숙 옮김, 『가상철학의 철학적 의미』 (서울: 책세상, 1993), p. 169.

Ⅱ. 도덕적 이탈의 원인에 관한 이론

1. 도덕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이론

온라인 상태에서 도덕적 이탈을 설명하는 기체로서 도덕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이론은 온라인의 기술적·존재론적 속성들이 우리의 도덕성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익명성이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란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행위자가 믿고 있는 상호성의 정도를 의미한다.⁴⁾ 익명성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고립 혹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사회적 거리를 만들어내어, 자기 이익적인 행동의 압도적 지배를 초래한다. 전통적인 사회적 거리 개념에 착안하여 최근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덕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 도덕적 거리 이론

도덕적 거리는 온라인 상태에서 행위자가 타인에게 갖고 있는 도덕적 의무감의 정도를 의미한다.⁵⁾ 온라인에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은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수반하는 해로움으로부터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기에, 우리의 도덕적 거리를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도덕적 거리를 크게 느낄수록 타인을 향한 도덕적 의무감은 그만큼 약해지고, 그 결과 우리는 쉽사리 도덕적 이탈을 범하게 된다.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거리가 도덕적 이탈을 초래한다고 믿는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루빈(Rubin)이다. 정보 사회에서 이전에는 예기치 못했던 많은 비도덕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보 기술이 지니고 있는 유혹 요인 때문이다. 그는 정보 통신 기술이 지니고 있는 일곱 가지의 유혹들이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⁶⁾ 그가 말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일곱 가지 유혹

4) E. Hoffman, K. McCabe & V. Smith, "Social distance and other-regarding behavior in dictator games", *American Economic Review*, 86(1996), p. 654.

5) F. Aguiar, P. Brañas-Garza & L. M. Miller, "Moral distance in dictator game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3-4(2008), p. 350.

6) R. Rubin, "Moral distancing and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seven temptations". In J. M. Kizza (Ed.), *Social and ethical effects of the computer revolution*(Jefferson: McFarland & Company, 1996), pp. 127-130.

요인들은 속도,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매체의 본질, 심미적 매료, 최소 투자에 의한 최대 효과, 국제적 범위, 파괴력이다.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에 대한 루빈의 논의는 도덕적 이탈을 야기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유혹 요인이 어떠한 도덕적 이탈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개인과 환경의 변인 중 지나치게 환경 변인으로서의 정보 통신 기술의 속성만을 다루고 있기에 도덕적 이탈에서의 개인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나. 심리적 거리 이론

심리적 거리는 주체와 객체 간의 실제하는 것과 지각된 것에 대한 심리 효과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느낀다. 달리 말해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의 실재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리버만(Liberman)과 그 동료들은 심리적 거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⁸⁾ 시간 거리(temporal distance)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시점과의 거리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시간과의 거리가 클 경우에, 그 사건에 감정을 연루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들은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에 비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감정을 연루시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 공간 거리(spatial distance)란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반응하는 거리를 의미한다. 주체가 어떤 주제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가 적을수록 심리적 거리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블로깅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기에 블로깅 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감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사회적 거리

7) R. Adair, "The psychological distance within the dynamics of the leader/follower relationship", *Leadership Review* 10(2010), p. 29.

8) N. Liberman, Y. Trope & E. Stephan, "Psychological distance", In & A. W. Kruglanski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New York: Guilford Press, 2007), pp. 355.

(social distance)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지칭한다. 그러한 관계는 본질상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것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가 없을수록 심리적 거리는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대 1의 온라인 게임에서 오늘 처음 만난 상대방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심리적 거리감이 크다. 끝으로 가상성 거리(hypotheticality distance)는 시간 거리의 정반대로서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감정과 에너지를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을수록 심리적 거리감은 커지게 된다. 온라인에서는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이 더 커질 수 있다.⁹⁾

크로웰(Crowell)과 그 동료들은 디지털 기술이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도덕적 기능의 4 구성 요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¹⁰⁾ 원래 4 구성 요소 모델(four component model)은 도덕적 행위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내적인 과정, 즉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 도덕적 행동을 나타낸다. 이 구성 요소들은 인성 특성이나 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도구이다. 4 구성 요소 모델은 과정의 총체(ensemble of processes)를 묘사하는 것이지, 분리된 별개의 요소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단일의 요소가 작동한다는 것이 도덕적 행위를 예측해 주지 못한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총체의 개별 과정 및 수행에 달려 있다. 개별 과정은 도덕적 행위의 완성을 촉진함에 있어서 함께 작용하는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크로웰과 그 동료들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감소된 사회적 억제를 유발하여 비윤리적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거리가 앞서 언급한 4 구성 요소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¹¹⁾

첫째, 심리적 거리는 변경된 도덕적 민감성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현상

9) N. Liberman & Y. Trope, "The psychology of transcending the here and now", *Science*, 322(2008), 1202.
 10) C. R. Crowell, D. Narvaez & A. Gombert, "Moral psychology and information ethics: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component of moral action in a digital world", In L. Freeman & A. Graham Peace (Eds.), *Information ethics: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Hershey: Information Science Publishing, 2005), p. 30.
 11) *Ibid.*, pp. 30-32.

은 대면적인 대인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호작용적 규칙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쉽게 활성화되거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심리적 거리는 재산을 구성하는 속성들에 대한 변화된 지각을 만들어낸다.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자료나 대상들은 물리적 자료나 대상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각된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파일 등의 사적인 소유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변경된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에 대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디지털 대상이나 자료에 대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준다. 디지털 자료나 대상이 사적인 소유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한, 디지털 자료나 대상과 연루된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관대한 도덕적 허용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송신자와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대상이나 자료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재산권 소유자의 심리적 거리가 커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심리적 거리는 도덕적 동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전거는 그 자전거의 소유자를 내포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못하기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일상적인 규칙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매체가 행위자로부터 한 쪽 끝에 있는 사람, 즉 개발자나 메시지의 수신자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크게 만들 때에는 일상적인 규칙이나 행동 기준에 의거하는 경향성이 감소된다. 달리 말해, 심리적 거리는 타인에 대한 결과나 해로움에 대한 지각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의 동기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끝으로 심리적 거리는 도덕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거리는 ‘해로움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는 식의 정신 상태를 유발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비도덕적 행위들에 관여하게 만든다. 이렇듯 디지털 기술은 심리적 거리에 의해 도덕적으로 관련된 정보의 처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에 도덕적 이탈을 용이하게 만든다.

크로웰과 그 동료들은 주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과 지적 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거리가 도덕적 기능의 4 구성 요소 각각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잘 보여주었다. 심리적 거리는 청중이나 재산권 소유자가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에 공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도덕적 민감성을 감소

시킨다. 제한된 공감은 가능한 행동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상황에서는 비도덕적인 것(예: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보다 수용 가능한 것(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는 것)으로 만드는 도덕적 판단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심리적 거리는 잠재적으로 해로움을 당하게 될 사람들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적 목표를 상승시켜 준다. 동시에 즉각적인 사회적 제재의 결여는 사이버 공간이 모두를 위한 무법의 자유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도덕적 동기를 크게 약화시킨다. 끝으로, 심리적 거리는 ‘해로움이 없다면 반칙이 아니기에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정신 상태를 유발하여 비도덕적인 행동에 쉽게 관여하도록 만든다.

도덕적 이탈의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크로웰과 그 동료들이 활용하고 있는 심리적 거리 개념은 앞서 루빈이 언급한 도덕적 거리 개념과 상당히 중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덕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는 기술의 속성이 우리의 도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한 영향이 행위자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의 문제, 즉 개인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2. 탈억제 이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적 이탈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흔히 사이버 공간에 진입하게 될 때에 현실의 규제로부터 풀려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탈억제(disinhibition)라고 부른다. 엄밀하게 말해서, 탈억제란 자기 표현과 타인의 판단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의 명백한 축소내지 감소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탈억제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은 온라인 상태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초래하는 원인들을 설명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한 연구들은 탈개성화(deindividuation), 축소된 사회적 단서, 사회적 실재감 등의 용어를 통해 잘 파악될 수 있다.

탈개성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르 봉(Gustave Le Bon)은 군중 속의 일

원이 되는 것은 침몰, 즉 개별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제약들이 제거되는 상태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탈개성화는 한 개인이 집단 속에서 개별화되지 않을 때에는 내적 제약의 감소가 발생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익명성, 각성, 감각적 과부하, 기분 전환용 약물, 자기 초점에서의 감소 등은 탈개성화를 유발하여 탈억제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기 쉽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해 의사소통이 익명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가 내적 기준이나 수혜자보다는 눈앞의 과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탈개성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보통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사용자들을 탈개성화되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조인슨(Joinson)에 의하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참가자들이 익명이 아닐 때에도 탈억제된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탈개성화의 필수적 전조라는 익명성이 온라인에서의 탈억제된 행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잘 보여준다.

축소된 사회적 단서 이론에 따르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한정된 대역폭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 동안의 사회적 단서의 축소가 사회적 규범과 제약의 영향으로부터의 축소를 유발하여 반규범적이고 탈규제적인 행동을 낳는다고 한다.¹³⁾ 하지만 축소된 사회적 단서 이론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사회성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협소한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관계의 발전, 대인 관계적 사회적 단서의 발전(예: 이모티콘), 전자 우편의 헤더와 서명에 담겨진 범주적 단서(예: 성, 지역, 직업) 등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성을 결여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실재감 이론은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상이한 실재 수준을 전달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이다. 사회적 실재감은 미디어를 이용할 때에 그 미디어가 사용자와 의사소통하고 있는 상대방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느냐의 문제와 관계된다. 대면적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높은 사회적 실재감을 보여주는 반면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낮은 사회적 실재감을 나타낸

12) A. Joinson, "Causes and implications of disinhibited behavior on the Internet," In J. Gackenbach (Ed.), *Psychology and the Internet*(San Diego: Academic Press, 1998), p. 49.

13) *Ibid.*, p. 50.

다. 일례로, 미디어 간의 사회적 실재감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면대면 상황 0.81, TV 0.24, 전화 -0.52, 멀티스피커 오디오 -0.81, 사무용 서한 -0.85이다. 따라서 낮은 사회적 실재감은 탈인격화된 커뮤니케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¹⁴⁾ 그 결과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은 덜 우호적이고, 감정적·개인적이며, 보다 사무적이거나 과제 지향적이 된다. 그러나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주어질 경우에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교환되는 사회적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사용자들 간의 관계의 발전도 찾을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에서의 탈억제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결과들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에, 어느 한 가지의 요인만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도덕적 이탈이 더 쉽게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기술적 특성, 커뮤니케이션의 특성만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과 결합된 사용자 자신의 성격 특성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의 탈억제에 대한 비교적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있는 사람은 바로 술러(Suler)이다. 술러는 탈억제 현상이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본다.¹⁵⁾ 탈억제는 개방적인 자기표현을 가능하게 해 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면적인 현실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슴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하게 된다.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긴장이 풀어짐을 느끼고, 무언가에 얽매어 있다는 느낌을 훨씬 적게 가지며, 보다 개방적으로 그들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관한 아주 개인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은 비밀스런 감정, 두려움, 소망을 토로하기도 한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례적으로 타인에게 친절함과 관대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술러는 이러한 긍정적 성격의 탈억제 현상을 온화한 탈억제(benign disinhibition)라고 부른다.

그러나 탈억제 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탈억제 효과는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무례한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거나 가혹한 비판·노여움·증오·위협을 가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탈억제 효과는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잘 찾아가지 않는 음란물 사이트나 폭력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의 어두운 뒷

14) 김유정,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p. 64.

15) Suler, J.,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7-3(2004), p. 321.

골목을 배회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술리는 이러한 부정적 유형의 탈억제를 유독한 탈억제(toxic disinhibition)라고 부른다.

내적인 감정과 욕구의 방출을 차단하는 심리적 경계가 느슨해지도록 만드는 탈억제 효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 술리에 의하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분열적 익명성(dissociative anonymity), ‘너는 나를 볼 수 없다.’는 불가시성(invisibility), ‘나중에 다시 보자.’는 식의 비동시성(asynchronicity), ‘그건 모두 내 머리 속에 있다.’는 유아적 투입(solipsistic introjection), ‘그것은 단지 게임이다.’는 분열(dissociation) 현상, ‘우리는 동등하다.’는 지위의 중립성(neutralizing of status),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라는 일곱 가지 요인들이 탈억제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이렇듯 탈억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한두 가지 요인이 지배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탈억제 효과가 생기게 된다.¹⁶⁾

술리의 탈억제 이론은 앞서 도덕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와는 달리 기술의 속성과 개인적 속성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술의 속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가 제시한 요인들은 앞서 루빈이나 크로웰 등이 제시한 요인들에 비해 다소 정교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갖는다. 루빈이나 크로웰 등은 기술의 속성들이 도덕적 이탈을 초래하는 과정을 비교적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술리는 온화한 탈억제와 유독한 탈억제를 동시에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려다보니 비도덕적 이탈 기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3. 도덕적 자기 조절 이론

도덕적 자기 조절(moral self-regulation)에 관한 밴두라의 관점 역시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밴두라(Bandura)의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적 자기 조절은 도덕적 사고나 의지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 제재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다.¹⁷⁾ 즉, 인간의 비도덕적 행동은 두 가지 형태의 통제 메

16) *Ibid.*, pp. 322-325.

커니즘을 거치게 된다. 사회적 제재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사회적 질타와 다른 나쁜 결과들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개인이 나쁜 행동을 하면 사회로부터 검열 당하고 처벌받을 것이라는 개인의 예상적 제재이다. 개인적 제재는 내면화된 자기 제재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만족과 자존감을 높여주며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비판과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개인의 예상적 자기 제재이다.

상황 요소에 의하여 발달되거나 움직이는 자기 조절 메커니즘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들, 즉 행동에 대한 자기 감시, 개인적 표준과 환경 상황에 관련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것, 정의적인 자기 반응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그리고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과 행동을 감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감시는 어떤 선입견이나 감정을 판단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표준과 환경 상황에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서 행동과 관련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에는 여러 가지 많은 판단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의적 자기 반응은 예상되는 자기 존중이나 자기 비난이 자기 규제 메커니즘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은 자기만족이나 보람의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밴두라는 개인의 도덕적 표준이 그의 행위에 선택적으로 활성화되고, 자기 조절이 비도덕적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현상은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언어의 사용, 유리한 비교, 책임 소재의 이동, 책임감의 분산, 결과의 무시와 왜곡, 비인간화, 비난의 전가와 같은 여덟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¹⁸⁾

밴두라에 의하면 사려 깊은 사람이 무원칙적이고 냉담하게 굳어버린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이러한 도덕적 이탈 현상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기 제재의 점진적 감소를 통해 서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밴두라는 도덕적 이탈을 유발하는 인지적·사회

17) Bandura,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Hillsdale: Erlbaum, 1991), p. 92.

18) Bandura, A.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2002), pp. 102-108.

적 기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우리가 비도덕적인 행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표준을 설정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는 도덕 행위자의 실천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본다.¹⁹⁾ 하나는 억제적 형태(*inhibitive form*)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인간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하나는 순행적 형태(*proactive form*)로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행동하려는 힘을 통해 표현된다. 그는 우리가 억제적 형태로서의 도덕 행위자보다는 순행적 형태로서의 도덕 행위자로서 기능할 때 인간다움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온라인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의 도덕적 이탈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에 온라인 상태에서의 인간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책임감의 분산은 오히려 온라인 상태에서 이타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에,²⁰⁾ 그의 이론은 다소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온라인 상태에서 도덕적 이탈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 기술이 행위자와 피행위자간의 도덕적 거리 및 심리적 거리를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커진 거리감은 우리의 내적 규제 체계가 탈억제되거나, 자기 이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적으로 도덕적 이탈 기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조절의 실패를 초래한다.

Ⅲ. 도덕적 이탈 예방을 위한 교육적 과제

일반적으로 도구적 이성이란 우리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수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응용해낼 수 있을까를 계산할 때 의지하게 되는 일종의 합리성이다. 최대의 효과, 즉 가장 적절한 투자-소득의 비율이 사업 성공의 척도인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위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느끼는 화려한 영광 속에서도 도구적 이성의 지배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적인 해결

19) *Ibid.*, p. 111.

20) 윌리스, P., 황상민 옮김, 『인터넷 심리학』 (서울: 에코라브르, 2001), p. 302.

책과는 분명히 다른 도덕적·정신적 계몽 같은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경우들이라고 할지라도, 도구적 이성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기계적·기술적 해결책만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게끔 조작하고 있다.²¹⁾

그런데 도구적 이성의 횡포는 인터넷윤리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윤리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나 정보화 역기능 문제들만을 내용으로 편성하여 졸속하게 교재를 만들어 단기간에 주입식 강의를 통해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려는 시도들이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지금 사이버 공간의 특성이나 학습자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인터넷윤리교육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셈이다.

단기간의 성과만을 앞세운 도구적 이성의 횡포는 인터넷윤리 혹은 인터넷윤리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의 부재에서도 드러난다. 인터넷윤리 혹은 인터넷윤리교육이 무엇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공통 개념(common definition)이 부재하는 가운데 저마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인터넷윤리교육에 임하다보니 투자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진하다. 개념적 합의 부재는 소통의 부재와 실천 방안의 모호성을 초래하여 오히려 인터넷윤리교육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인터넷윤리교육이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할 줄 알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탈을 촉진하는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윤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여기서는 이 문제를 다루되, 구체적인 인터넷윤리교육의 방법보다는 향후 인터넷윤리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동시에 밴두라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억제적 형태로서의 도덕 행위자보다는 순행적 형태로서의 도덕 행위자를 양성하기 위한 인터넷윤리교육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자기 조절 역량의 함양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윤리교육은 학생들의 자기

21) 테일러, C., 송영배 옮김, 『불안한 현대 사회』(서울: 이학사, 2001), p. 15.

조절 역량을 함양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조절은 상위의 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사고·감정·욕구·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자기 조절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진척 상황을 모니터하며, 현재의 상태와 목표에 의해 구체화된 기준과의 어떤 모순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상황과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기 조절은 우리가 사건에 대한 무력한 관망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능동적인 의사결정 및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실현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자기 조절은 도덕적 이탈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다.

‘타인에게 해로움을 주지 마라.’와 ‘타인을 도와주어라.’는 말은 얼핏 보면 동의어처럼 느껴진다. 둘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해로움을 주지 않는 것이 돕는 것과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어의적이고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도덕적 조절의 두 가지 독특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규정적 도덕성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을 알려 준다. 반면에 금지적 도덕성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 준다. 규정적 도덕성은 긍정적인 결과에 다가서기 위해 좋은 행동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고, 금지적 도덕성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렇듯 도덕적 조절은 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²²⁾ 하나는 부정적 결과에 민감한 금지 체계로서, 이것은 주로 행동 금지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하나는 긍정적 결과에 민감한 규정 체계로서, 이것은 주로 행동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지적 조절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비도덕적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규정적 조절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긍정적 결과를 얻기 위해 도덕적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조절의 과정은 의도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금지적 조절과 규정적 조절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의식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향후 인터넷윤리교육에서는 도덕 원리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자

22) R. Janoff-Bulman, S. Sheikh & S. Hepp, "Proscriptive versus prescriptive morality: Two faces of moral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2009), p. 521.

신에게 의미 있는 도덕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과 목표 미달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긍정적인 동기를 지닌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

도덕적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인터넷윤리교육은 확고한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촉진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혁명은 일원론적인 자아의 존립 근거를 무색하게 만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중 인격 장애와 유연한 자아 간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터클(Turkle)은 유연한 자아 개념을 수용할 것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다. 유연한 자아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아의 여러 측면 간에 의사소통의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점이다. 의사소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내 안의 여러 측면과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자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²³⁾ 이 유연한 자아가 프로테우스 신처럼 자유자재로 변신하되 일관성과 도덕적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진정한 자기 인식을 열어줌으로서 건강한 자아가 다양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연한 자아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립튼(Lifton)이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적 알맹이나 자아의 내적 형식을 포기 못한 채 끝없이 곱돌 수도 있게 된다.²⁴⁾ 네트워크 시대에서 자아의 다양성과 일관성이라는 모순된 특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우리는 립튼이 말한 바와 같은 비극에 처할 수 있다. 다중 인격 장애 혹은 정체성의 분열은 전자적 쾌락을 좇으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강화시키고, 도덕적 행위의 대상인 타자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도덕성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인터넷윤리교육에서는 분열되고 파열된 자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아에 대한 배려, 본능적 충동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절제력 있는 자아의 발현

23) 터클, S., 최유식 옮김, 『스크린 위의 삶』 (서울: 민음사, 2003), p. 404.

24) R. Lifton, *The protean self*(New York: Basic Books, 1993), p. 229.

을 위한 자아에 대한 존중과 격려, 자신의 정체성을 도덕의 관점에서 정의하려는 열정과 의지를 지닌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이 개인적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아의 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3. 통합적 도덕성의 발달

정보 통신 기술은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촉진하는 요인들을 갖고 있으므로, 인터넷윤리교육은 도덕성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길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달리 말해, 인터넷윤리교육에서 학생들은 도덕성의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 경험을 해야 한다. 불행히도 현재의 인터넷윤리교육은 지식과 정보의 제공에만 치우침으로써 상황 속에서 도덕적 문제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도덕적 민감성만을 부분적으로 자극하는데 그치고 있다.

첫째, 도덕적 민감성의 발달을 촉진하되, 특히 학생들의 역할채택과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 심리적 거리감은 도덕적 민감성의 요수 가운데 특히 역할채택과 공감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을 위해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딜레마나 갈등 상황을 소재로 하는 대화와 토론을 자주 활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딜레마 토론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추론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타인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경험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가능한 행동 방안에 있어서 어떤 것이 도덕적이고, 어떤 것이 비도덕적인 것을 식별하고 판정하는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

셋째, 도덕적 동기를 길러주어야 한다. 도덕적 동기 기능은 양심 혹은 자기 명령의 계발, 책임감 있는 행동, 전통과 제도의 존중, 도덕적 정체성과 충실성의 발달을 포함한다. 인터넷윤리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넷 관련 법규와 제도, 윤리 강령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줌과 동시에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정의하려는 자아개념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자아가 도덕적 정체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도덕적 행동 기능을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 도덕적 행동 기능은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계획을 세우는 것, 압력에 굴하지 않는 도덕적 용기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의지의 힘 혹은 자아 강도와 구체적인 실천 기능을 계발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도덕적 행동의 실천을 위해 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과 관련된 사회적 부정의나 모순에 직면하여 저항하고,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판적 행위 기능을 길러주어야 한다.

IV. 결론

이용과 충족 이론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한 충족을 얻기 위해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탐색·선택하는 존재이다.²⁵⁾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은 오래 전 매슬로우(Maslow)가 지적했었던 인간의 욕구들을 아주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준다. 원래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의하면, 보다 상위의 욕구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하위의 욕구들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²⁶⁾ 하지만, 인터넷은 매슬로우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원하는 때는 언제나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를 선별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마법과도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특히 인터넷은 현실에서 좌절된 욕구를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과는 왜곡된 형태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우리들 각자가 바라는 모든 욕구들을 상대적으로 값싸고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주기에 우리의 존재적 특성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지 않기에 우리의 도덕감(moral sense) 자체가 느슨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인간의 도덕성은 현실 공간에 비해 더욱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온라인 상태에서 오프라인 상태에 비해 훨씬 잦은 그리고 많은 도덕적 이탈을 경

25) B. J. Parker & R. E. Plank, "A uses and gratifications perspective on the Internet as a new information source", *American Business Review*, 18-2(2000), p. 43.

26) 매슬로우, A. H., 이혜성 옮김, 『존재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p. 54.

험한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상태에서와 달리 온라인 상태에서 왜 우리는 더 많은 도덕적 이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

무릇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기에,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 역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인터넷윤리교육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원인을 처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 기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도덕적 거리 이론, 심리적 거리이론, 탈억제 이론, 자기 조절 이론이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초래하는 근본 기제를 설명하기 위한 네 가지 이론들의 특징과 유용성을 밝히고, 그러한 기제들이 인터넷윤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글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도덕적 이탈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보 기술이 행위자와 피행위자간의 도덕적 거리 및 심리적 거리를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듯 커진 거리감은 우리의 내적 규제 체계가 탈억제되거나, 자기 이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적으로 도덕적 이탈 기제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조절의 실패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의 개인차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 기제에 대한 이론들은 향후 인터넷윤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행위자들은 온라인 상태에서 사회적 상황들에 민감하지 않기에 억제적 형태로서의 도덕적 실천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힘을 가진 순행적 형태로서의 도덕적 행위자를 양성하는 데에 인터넷윤리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도덕적 이탈을 예방하기 위고, 순행적 형태의 도덕 행위자를 양성하기 위해 향후 인터넷윤리교육은 자기 조절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 도덕성의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길러주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인터넷윤리교육이야말로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사이버 문화 창달을 위한 가장 소중한면서도 가장 값싼 투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레비(Pierre Levy)의 경구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정보의 바다에 견고한 바닥이란 없다. 그것을 새로운 조건으로 수용해야 하며, 아이들에게 헤엄치고 떠다니고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²⁷⁾

□ 논문 접수 : 2012년 11월 15일 / 수정본 접수 12월 13일 / 게재 승인 12월 18일

27) 레비, P., 김동윤·조준형 옮김, 『사이버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0). p. 28.

<참고문헌>

- Lifton, R., *The protean self*(New York: Basic Books, 1993).
- Sichel, B. A., *Moral education*(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8).
- 구락, L. J., 강수아 옮김, 『거미줄에 걸린 웹』 (서울: 코기토, 2001).
- 라인골드, H., 이운경 옮김, 『참여군중』 (서울: 황금가지, 2003).
- 레비, P., 김동윤·조준형 옮김, 『사이버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0).
- 매슬로우, A. H., 이해성 옮김, 『존재의 심리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 버트하임, M., 박인찬 옮김, 『공간의 역사』 (서울: 생각의 나무, 2002).
- 윌리스, P., 황상민 옮김, 『인터넷 심리학』 (서울: 에코라브르, 2001), 302
- 터클, S., 최유식 옮김, 『스크린 위의 삶』 (서울: 민음사, 2003).
- 테일러, C., 송영배 옮김, 『불안한 현대 사회』 (서울: 이학사, 2001).
- 하임, M., 여명숙 옮김, 『가상철학의 철학적 의미』 (서울: 책세상, 1993).
- Adair, R., "The psychological distance within the dynamics of the leader/follower relationship", *Leadership Review*, 10(2010), 27-38.
- Aguiar, F., Brañas-Garza², P. & Miller, L. M., "Moral distance in dictator game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3-4(2008), 344-354.
- Bandura,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Hillsdale: Erlbaum, 1991). 71-129.
- Bandura, A., "Moral disengagement in the perpetration of inhumanit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1999), 193 - 209.
- Bandura, A. "Se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2(2002), 101-119.
- Crowell, C. R., Narvaez, D. & Gomberg, A., "Moral psychology and information ethics: psychological distance and the component of moral action in a digital world", In L. Freeman & A. Graham Peace (Eds.). *Information*

- ethics: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Hershey: Information Science Publishing, 2005), 19-37.
- Hoffman, E, McCabe, K. & Smith, V., "Social distance and other-regarding behavior in dictator games", *American Economic Review*, 86(1996), 653-660.
- Janoff-Bulman, R., Sheikh, S. & Hepp, S., "Proscriptive versus prescriptive morality: Two faces of moral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3(2009), 521-537.
- Joinson, A., "Causes and implications of disinhibited behavior on the Internet," In J. Gackenbach (Ed.), *Psychology and the Internet*(San Diego: Academic Press, 1998), 43-60.
- Liberman, N., & Trope, Y., "The psychology of transcending the here and now", *Science*, 322(2008), 1201 - 1205.
- Liberman, N., Trope, Y. & Stephan, E., "Psychological distance", In & A. W. Kruglanski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New York: Guilford Press, 2007), 353-383.
- Parker, B. J. & Plank, R. E., "A uses and gratifications perspective on the Internet as a new information source", *American Business Review*, 18-2(2000), 43-49.
- Rubin, R., "Moral distancing and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he seven temptations". In J. M. Kizza (Ed.), *Social and ethical effects of the computer revolution*(Jefferson, NC: McFarland & Company, 1996), 124-135.
- Suler, J.,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7-3(2004), 321-326.

<Abstract>

Online Moral Disengagement and the Task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Chu, Beong-Wan

While online, many people frequently experience moral disengagement. The disengagement of self-sanctions from immoral behaviors online is a growing humane problem at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level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clarify the mechanisms of online moral disengagement, and to propose appropriate direction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for educating informed and active youth netizens. For this aim, I tried to four important theories on moral disengagement such as moral distance, psychological distance, disinhibition and moral self-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online moral disengagement, Internet ethics education should orient toward cultivating capacities of self-regulation, developing moral identity, and fostering four components of morality in an integrated way.

Key Words : disinhibition, Internet ethics education, moral disengagement, moral distance, moral self-regulation, psychological distance